

대한민국 MTB 중심지 도약 기대

무주군, 한국산악자전거연맹과 산악자전거 기반 조성·활성화 업무협약

산악자전거(MTB, Mountain Bike) 명소 무주군이 한국산악자전거연맹과 손을 잡았다. 14일 업무협약을 맺은 두 기관은 앞으로 산악자전거(MTB)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힘쓰기로 협력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무주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재권 한국산악자전거연맹 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무주군의 MTB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MTB 저변 확대 및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과제 발굴, △각 기관의 홍보 채널을 활용한 홍보 디자화 등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자연특별시 무주는 MTB를 비롯한 산악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상의 여건을 지닌 곳”이라며 “오늘 협약이 한국산악자전거연맹과의 상호작용을 불러와 무주를 대한민국 MTB 중심지로 육성하는 동시에 산림휴양과 레포츠가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무주군과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은 14일 산악자전거(MTB)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김재권 한국산악자전거연맹 회장은 “MTB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걸음을 무주군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보석과도 같은 무주군의 산림자원이 전국 산악자전거인들의 기량을 키우고 산악자전거 종목의 발전을 불러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무주가

대한민국 MTB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연맹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약식 직후 한국산악자전거연맹 관계자들은 무주군 인성면 ‘덕유산 산림욕장’과 ‘나목적 임도’ 조성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임지 여건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민 생존권·국산 과일 산업 지켜야’

장수군의회,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결의안’ 채택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14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농민의 생존권과 국산 과일 산업의 미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래를 지키기 위해 사과 수입 검토 중단을 결의하기 위한 것이다.

장수군의회는 지역 농민의 생존권과 국산 과일 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장수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며, “통상정책은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지만,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농업을 회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수군의회는 지역 농민들과 뜻을 함께하며,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철회를 위한 목소리를 결집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농민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며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했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공장 부대 시설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공단지 내 기업들의 전기공사업 등록이 수월해지는 한편,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별도 사무실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도 줄어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와 불편에 대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실적인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현장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제1회 경기도체육회장배 전국승마대회 장수서 개최

장수군이 14일부터 오는 20일 까지 5일간 천천면에 위치한 장수국제승마장에서 ‘제1회 경기도체육회장배 전국승마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승마협회(회장 김의종)가 주관하고 대한승마협회로부터 전 종목 공인을 받은 전국 규모의 대회로 마장미술·장애물 2개 종목 총 25경기 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에는 전국 초등부에서 일반부까지 약 500명의 선수와 400두의 마필이 참가해 수준 높은 기량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종목으로 KEF 공인종목인 마장미술 A, B, C, D, F, S-1 Class와 장애물 80~145 Class까지 다양한 레벨로 구성됐고 특히 이번 대회는 ‘제10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대표 선발전’을 겸해 더욱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운일암반일암에 어린이 물놀이터 개장

진안군은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줄 ‘운일암반일암 물놀이터’를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름 아래 물놀이터’는 진안군 대표 지침명소인 운일암반일암에 조성된 어린이 전용 야외 물놀이 공간으로, 바닥분수와 인공폭포, 그늘 쉼터 등을 갖춰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한다.

물놀이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간 45분 운영·15분 휴식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용료는 무료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과 청소를 위해 휴장하며,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3명을 상시 배치하고, 점기적인 용수 교체와 수질검사를 통해 청결한 수질을 유지한다.

시범 운영을 거쳐 부족한 점을 보완한 뒤,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개장일인 26일~27일까지는 스티커체험 부스, 포토존, 기념품 증정, 듯자리 대여, 공기주입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제2농공단지 전경.

기업 현장 규제개선 과제 수용

무주군, 제2농공단지 전기공사업 등록 위한 사무실 포함 제안

무주군 기업 현장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기업 관련해 벌금·제안한 규제개선 과제가 관계 부처의 수용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과제는 무주제2농공단지 내 공장의 부대 시설 범위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용된 과제는 향후 관계 부처의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개선될 예정이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은 농공단지 내 공장의 부대 시설 범위에 포함되며 대체로 사무실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도 줄어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와 불편에 대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실적인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현장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제10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무주군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개최되는 ‘2025 제10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자연특별시 무주’를 알린다.

무주군은 전국의 자치체는 물론, 해외 관광청과 여행사 등 3백여 곳의 국내외 관광업 관계자들이 모이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불거리, 즐길거리가 드는 관광 명소 무주의 매력을 알리다는 각오로, 전시 기간 단독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를 비롯해 덕유산국립공원, 태권도원·태권어드벤처, 반디랜드 등을 홍보하는데 집중한다. 이와 함께 바이어(buyer)들을 상대로 현장 상담을 진행, 관광객 유치 및 협업의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반딧불축제와 시즌별 여행코스 등을 생생한 이미지와 영상 콘텐츠로 제공하며 SNS 인증

/무주=전문선 기자

‘2026~2027 진안방문의 해’ 본격 홍보

진안군은 ‘2026~2027 진안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군은 7월부터 관내 11개 읍·면·이장 회의를 순회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진안읍을 시작으로 7월 한 달 동안 6개 읍·면을 차례로 방문하며, 오는 8월까지 전 읍·면 순회를 마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진안방문의 해’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공유했다.

요청했다. 특히, 관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을 통한 무주 특산물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한, 경품추첨을 통해 △1박2일 생태탐험 이용권(1명) △나불리조트 숲바위(2명) △반딧불이 신비탐사 이용권(30명) △반디누리관 입장권(100명)을 제공하는 등 방문객과의 소통에 주력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를 사랑하게 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